

여성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건강행태의 매개효과 분석

원서진¹, 송인옥^{2*}

¹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The Effect of Poverty on Depression of Female Older Adults: Health-related Behavior as a Mediator

Seojin Won¹, Inuk Song^{2*}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Cyber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Daegu Cyber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여성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여성노인 2,655명을 추출하여 2차자료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TATA 1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의 건강행태가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노인의 빈곤은 우울에 영향을 미쳐, 빈곤 여성의 우울감이 비빈곤 여성의 우울감보다 높았다. 또한 빈곤 여성노인이 비빈곤 여성노인에 비해 흡연을 많이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흡연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노인이, 흡연을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여성노인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흡연과 규칙적인 운동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노인의 빈곤에 따른 우울을 경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effect of poverty on the depression of female older adults. It also aim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related behavior in the poverty-depression relationship. The authors conducted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6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e final sample included 2,655 women who were 65 years old or olde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poverty,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poverty increased depression among female older adults. Also, female older adults who are poor were more likely to smoke and less likely to perform regular exercise. As female older adults smoke and do not exercise regularly, their depression tends to increase. The mediating effects of smoking and regular exerci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the researchers discussed the implication of the findings to social work practice and social welfare policy.

Keywords : Women, Older Adults, Poverty, Depression, Health-Related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Inuk Song(Daegu Cyber Univ.)

email: inugi@dcu.ac.kr

Received November 25,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Revised December 27,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편으로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6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1].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와 더불어 빈곤 노인의 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가 적용하고 있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으로 봤을 때, OECD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43.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2].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40세 이후부터 빈곤율이 OECD의 평균을 넘기 시작하여 은퇴 시점인 51-65세의 빈곤율은 OECD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수급자 비율에서도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수급자 비율은 전체 수급자 중 각각 12.4%와 10.0%인데 반해 중년기에는 34.9%로 급증하고 노년기에는 35.3%에 이르러 중고령층이 전체 수급자의 70%를 상회한다.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 역시 전체 평균은 3.5%인 반면, 노년기에는 7.9%로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3]. 노인의 빈곤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성비는 70.3으로,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이 70.3명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노인 성비의 불균형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해져서 65-69세의 성비는 91.0인데 비해, 70-74세에서는 84.0, 75-79세에서는 66.1, 80-84세에서는 61.5, 85세 이상에서는 39.9로 나타난다[4]. 이는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 80.3세, 여성 86.3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5], 이를 '노령의 여성화'라고 한다[6].

노인층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문제는 나라마다 구체적인 양상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젊은 시절 주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이 집에서 가사노동을 해왔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제활동의 주축이었던 배우자와의 사별은 여성노인이 빈곤에 빠질 확률

을 증가시킨다[8]. 또한 배우자의 사망 전 투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역시 남은 여성노인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수급노인 중 남성노인은 4.2%인데 반해 여성노인은 7.3%로 여성노인의 수급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6]. 이를 '노인 빈곤의 여성화'라 지칭하는데[9], 노령의 여성화는 노인 빈곤의 여성화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령의 여성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수준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빈곤의 여성화는 여성노인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빈곤한 여성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여성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낮고[10,11], 우울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12-15]. 노인의 우울은 종종 자살로 이어지는데, 2019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80세 이상에서 67.4명으로 제일 높았고, 70대 46.2명, 60대 33.7명으로 노인층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16]. 또한 노인 자살동기에 있어 우울증이 질병 다음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의 빈곤과 우울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한 노인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낮고[17], 우울감은 더 느끼며[18-20],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종교, 학력,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관계 등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12-15,21-24].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여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우울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12,19], 여성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고정은과 이선혜의 연구는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으로 구분하여 여성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는데[6], 빈곤 집단이 비빈곤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여성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빈곤 집단에서는 건강상태, 종교, 배우자 유무 순으로 우울에 영향을 주었다. 이주미, 강예은, 김태완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자산만 빈곤한 경우보다 소득이 빈곤한 경우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12]. 경제수준에 따른 여성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을 분석한 또다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이 '하'인 여성노인의 우울이 '중', '상'인 여성노인에 비해 높았고, 경제수준이 '하'인 여성노인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고 음주빈도가 낮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여성노인의 우울이 낮았다[13].

그러나 위에 언급한 연구들 외에는 여성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는 드물고, 특히 건강수준과 함께 노인에게 있어 중요한 건강 관련 지표로 여겨지는 건강행태를 포함한 연구는 거의 없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경제수준과 함께 건강상태를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15,24], 이는 주로 주관적 건강상태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우울에 관한 연구로,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행태가 여성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건강행태는 주관적으로 자각하는 건강상태와는 달리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적정 수면시간 유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강습관 혹은 건강증진행위를 의미한다[25]. 이러한 건강행태는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생활 습관으로 대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계층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등의 건강행태요인이 노인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이 중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6,13,24,27].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우울이 높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6,26-28], 특히 노인의 우울은 여성, 낮은 소득, 신체기능장애 및 낮은 사회적 지지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31].

본 연구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요인으로서의 빈곤과의 인과관계에서 그 근접요인인 건강행태가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격차 해소를 위한 실제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인과 관계에 있어서 건강행태의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2].

여성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요인으로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과 함께 음주와 운동의 빈도, 인구학적 요인으로 아침, 점심, 저녁식사 빈도 및 식생활 수준을 분석한 최근 연구가 있으나[13], 이 외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행태를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드문 실정이다.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빈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23],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24], 건강행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32] 및 우울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존재하는 반면[33],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빈곤, 건강행태, 우울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노인에게 맞는

사회복지실천 혹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 연구는 드물다. 남성노인에 비해 노년기가 긴 여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 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유지가 필수적이거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노인의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빈곤의 기준은 크게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으로 구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빈곤선은 유럽연합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혹은 60%,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한다[34].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선으로 빈곤율과 최저생계비 등을 측정하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상대적 빈곤선을 통한 측정으로 변경하였다.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지급기준이며, 의료급여의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의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 따라 각기 상이한 기준선을 적용하고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상대적 빈곤선 중 최저선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즉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빈곤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빈곤이 여성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정 가능한 건강행태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여 보다 실천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질문 1. 여성노인의 빈곤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질문 2. 여성노인의 건강행태는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6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2차자료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45세 이상 성인 10,2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년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

감 및 삶의 질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6차년도 자료는 2016년에 조사한 것으로, 총 9,913명의 조사대상자 중 7,893명을 조사하여 79.6%의 응답률을 나타내며[36], 이번 조사에 포함된 65세 이상 여성노인은 2,655명이다.

2.2 측정변수

종속변수인 우울은 CES-D-10을 활용하였다. 대상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느낀 우울한 감정에 대한 10가지 항목(예: 마음이 슬픔, 모든 일에 힘든 느낌 등)에 대해,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1)’,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2)’,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4)’으로 대답하였다. 이후 1번과 2번은 응답은 0으로, 3번과 4번 응답은 1로 재코딩한 뒤 합산한 변수를 이용하였으므로, 점수분포는 0에서 10으로 나타나며, 수치가 클수록 우울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빈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중 최저선인 중위소득 40%를 적용하여[34,35], 의료급여 수급여부로 판단하였다. 즉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40%보다 적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빈곤’ 상태로 간주하여, 건강보험가입자를 0,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를 1로 재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의 4가지 요인을 매개변수인 건강행태로 포함하였다. 복수의 매개변수를 연구모형에 투입하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석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는 연속변수 뿐 아니라 이산변수도 포함된다[37,38]. 그러나 원자료에서의 건강행태 변수들은 이분변수와 다항변수가 혼재되어, 이 변수들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흡연은 현재 흡연하고 있는 여성노인을 0, 흡

연하고 있지 않은 여성노인을 1로 코딩하였으며, 음주 역시 현재 술을 마시는 여성노인을 0,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노인을 1로 재코딩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노인을 0,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여성노인을 1로 재코딩하였다. 규칙적인 식사는 1회 혹은 2회 식사를 하는 여성노인을 0, 매일 3회의 식사를 하는 여성노인을 1로 코딩하였다. 측정변수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TATA 1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의 경우 이분변수는 응답자의 수와 퍼센트를 구하고,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각 변수들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적합하고, 특히 매개효과 분석에 용이하여 본 연구에서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는 카이제곱, Root Mean Square of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of Residual(SRMR), Comparative Fit Index(CFI)로 분석하였으며, RMSEA는 0.5 이하, SRMR는 .10이하, CFI는 .90 이상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판단하였다[39,40].

이후 변수들 간의 경로는 표준화된 추정값으로 분석하고,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는 효과분해와 더불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사이 경로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구한 뒤 소벨테스트로 분석하였다[41].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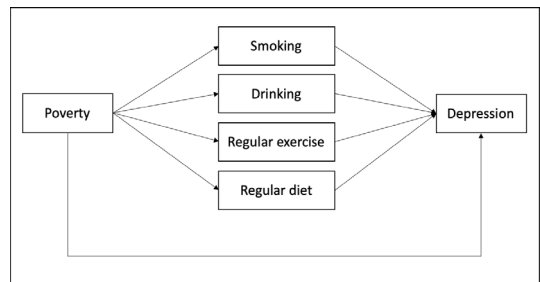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s

Variables	Measures
Depression	0~10
Poverty	Not in poverty: 0 Under poverty: 1
Smoking	Smoking: 0 Non smoking: 1
Drinking	Drinking: 0 Not drinking: 1
Regular exercise	No regular exercise: 0 Regular exercise: 1
Regular diet	One or two meals per day: 0 Three meals per day: 1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우울 평균은 3.5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84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 수급자인 빈곤여성 노인은 174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6.55%를 차지하였다. 건강행태에서는 흡연하는 여성노인은 43명으로 1.6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음주하는 여성노인은 291명으로 전체의 10.96%를 차지하여 흡연보다 음주를 하는 여성노인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73.33%의 여성노인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으로 하루 3번의 식사를 하지 않는 노인은 184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6.93%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Mean)	% (SD)
Depression		(3.58)	(2.84)
Poverty	No	2,481	93.45
	Yes	174	6.55
Smoking	Yes	43	1.62
	No	2,612	98.38
Drinking	Yes	291	10.96
	No	2,363	89.04
Regular exercise	No	1,947	73.33
	Yes	708	26.67
Regular diet	No	184	6.93
	Yes	2,471	93.07

3.2 구조방정식 결과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도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chi^2(4)=12.31(p<.05)$, RMSEA=.028, SRMR=.015, CFI=.957).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빈곤 여성노인에 비해 빈곤여성노인의 우울감이 높았다($\beta=.072$, $p<.001$). 그리고 흡연하는 여성노인이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beta=-.054$, $p<.01$).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노인이 술을 마시는 여성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아 흡연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beta=.071$, $p<.001$).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노인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여성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고($\beta=-.146$, $p<.001$), 식사 역시 하루 3번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의 우울감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여성노인에 비해 높았다($\beta=-.093$, $p<.001$).

빈곤이 건강행태에 미치는 경로는 흡연과 규칙적인 운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다시 말해, 빈곤여성은 빈곤여성에 비해 흡연을 더 하고($\beta=-.123$, $p<.001$), 규칙적인 운동은 빈곤여성에 비해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0$, $p<.001$).

Table 3. Standard Coefficients of the SEM Model

Paths		β
Depression<-	Poverty	.072***
	Smoking	-.054**
	Drinking	.071***
	Regular exercise	-.146***
	Regular diet	-.093***
Smoking<-	Poverty	-.123***
Drinking<-	Poverty	-.029
Regular exercise<-	Poverty	-.050**
Regular diet<-	Poverty	-.03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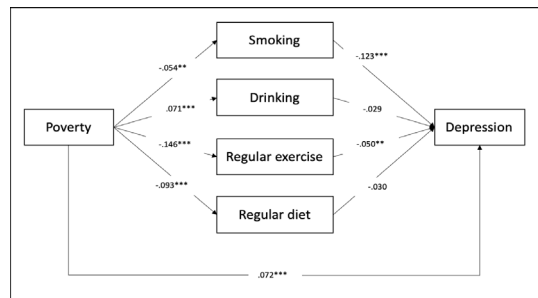


Fig. 2. Paths Diagram

건강행태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효과분해 분석결과,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 감소하였으며($\beta=.205^{***}$ -> $\beta=.072^{***}$),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의 4가지 건강행태 요인 중 흡연($z=2.564$, $p=.01$)과 규칙적인 운동($z=2.432$, $p=.02$)이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obel-test results of the mediating variables

Variables	Z-score	p-value
Smoking	2.564*	.01
Drinking	1.452	.15
Regular exercise	2.432*	.02
Regular diet	-1.377	.17

4.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여성노인 2,56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의 건강행태가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의 빈곤은 우울에 영향을 미쳐, 빈곤한 여성노인이 빈곤하지 않은 여성노인에 비해 우울감을 더 느꼈는데, 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우울감을 더 느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13-15, 28, 29, 42-44]. 또한 흡연하는 여성노인이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노인이 술을 마시는 여성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아 흡연과 음주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흡연과 음주의 상반된 결과는 건강행태 변수를 이분변수로 투입하여(0: 술을 마심, 1: 술을 마시지 않음), 친목활동에서 하는 가벼운 음주를 포함했기 때문일 수 있으나 추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과 식사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이 규칙적으로 운동과 식사를 하는 여성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는데 이는 건강행태에 따라 노인의 우울감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44]를 지지했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 적절한 운동과 식사가 이들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노인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교육 서비스 안에는 영양교육, 보건의료, 건강교육, 우울예방프로그램 및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45], 이러한 생활교육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영양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의 건강행태가 여성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흡연과 규칙적인 운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여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이는 빈곤 여성노인의 우울감을 완화시켜 건강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단위의 지원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로 사용자 부담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 여성노인에게 지역사회 내의 공적 서비스를 통해 건강행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46].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노인의 주거지원, 방문건강 및 의료, 재가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습관 모니터링이나 신체,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건강증진교실을 활성화하여 노인대상 금연교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빈곤 여성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문화체육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내의 생활기반시설도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행태가 빈곤과 우울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지를 파악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2차자료 분석에 의한 변수 선정의 한계로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외에 수면시간, 채소 및 과일 섭취, TV 시청시간 등 다양한 건강행태 관련 변인을 연구모형에 추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여성노인의 만성질환과 거동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강행태의 특징에 대한 분석 및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 여건 변화와 우울감의 증감을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이것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0 Statistics of Older Adults,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accessed Sep. 20, 2021)
- [2] M. Chang, Poverty Rate of Korean Older Adults and Its Implication. Korea Institute of Finance, Korea, 2019.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Statu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2020.
- [4]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Older Adult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From: <http://kosis.kr> (accessed Sep. 5, 2021)

- [5] Statistics Korea. Life Expectancy: E-Nation's Index, Available From: <http://index.go.kr> (accessed Sep. 4, 2021)
- [6] J. Ko, S. Lee, "What influence does poverty have upon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wome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68, pp.251-272, 2015.
DOI: <http://doi.org/10.21194/kjgsw..68.201506.251>
- [7] K. Kim,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elderly living alone: Using data from 2015 Community Health Surve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97-106, 2017.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97>
- [8] M. Jang, "Poverty of older women: The viewpoint of generational study",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 Korea, pp.443-458, 2013.
- [9] Y. Won, "Poverty of elderly women in Korea: The current situations and policy countermeasures", *Journal of Korea Women's Research*, Vol.6, pp.45-80, 2008.
- [10] H. Kang, Y. Kim,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focused on household types and poverty level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20, No.1, pp.71-80, 2009.
- [11] D. Kim, E. Park,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females' productive activ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38, pp.339-358, 2007.
- [12] J. Lee, Y. Kang, T.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sset and depression in elderly women",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Vol.13, No.1, pp.145-178, 2021.
DOI: <https://doi.org/10.22791/ewhagl.2021.13.1.005>
- [13] M. Kwon, K. Seo,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Comparison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7, No.3, pp.226-235, 2020.
DOI: <https://doi.org/10.7739/ikafn.2020.27.3.226>
- [14] M. Lee, M. Han, "Convergence factors of affecting depression of elderly women in rural a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5, pp.341-349,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5.341>
- [15] E. Park, I. Lee,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omen in poverty",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Vol.34, No.2, pp.356-366, 2009.
DOI: <https://doi.org/10.5393/JAMCH.2009.34.2.256>
-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21 White paper on suicide prevention, Korea, 2021.
- [17] M. Park,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upport network types on life satisfaction comparison between the elderly living in poverty and the elderly not living in poverty",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0, No.1, pp.207-233, 2012.
- [18] S. Lee, S. Lee,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types and sources on the depression and self-respect in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5, No.3, pp.71-95, 2014.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4.45.3.71>
- [19] B. Kim,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factors affect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ellness*, Vol.15, No.4, pp.695-706, 2020.
DOI: <https://doi.org/10.21097/ksw.2020.11.15.4.695>
- [20] M. Park, K. Cho, "The effect of transition of living with chronic diseases on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2, pp.354-361,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2.354>
- [21] J. Kim, "The effect of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on depression on elderly living in Jeju: A comparison of aged 65-74 years and 75+ years", *Health & Welfare*, Vol.23, No.2, pp.7-33, 2021.
DOI: <https://doi.org/10.23948/kshw.2021.6.23.2.7>
- [22] J. Kim, "The effect of neighborhood environment on depression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of elderly living in Jeju",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6, No.2, pp.9-43, 2021.
DOI: <https://doi.org/10.21194/kjgsw.76.1.202103.9>
- [23] S. Won, "The role of poverty on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6, pp.520-526,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6.520>
- [24] S. Kim, J. Kim, S. Chung, "The effect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oneliness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Focusing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age-friendly environmen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73, No.2, pp.9-27, 2018.
DOI : <https://doi.org/10.21194/kjgsw.73.2.201806.9>
- [25] M. Lee, D. Kim, "Predictors of Korean elderly peoples self-rated health status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o-economic positio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24, No.1, pp.37-49, 2013.
DOI: <https://doi.org/10.7856/kjcls.2013.24.1.37>
- [26] J. Lee, Y. Kang, T.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sset and depression in elderly women",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Vol.13, No.1, pp.145-178, 2021.
DOI: <https://doi.org/10.22791/ewhagl.2021.13.1.005>
- [27] K. Kim, J. Kim, H. Rhee, "A study on the depression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in the elderly: A comparison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of the households", *Health and Social*

- Welfare Review*, Vol.40, No.3, pp.286-314, 2020.
DOI: <https://doi.org/10.15709/hswr.2020.40.3.286>
- [28] S. Kim, K. Ju, S. Chung, "The effects of income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65, pp.103-136, 2018.
DOI: <https://doi.org/10.15300/jcw.2018.65.2.103>
- [29] T. Kim, J. Lee, J. Jung, "A study of elderly poverty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5, No.3, pp.71-102, 2015.
DOI: <http://doi.org/10.15709/hswr.2015.35.3.71>
- [30] O. M. Baik,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drinking behavi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U.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2, pp.7-31, 2011.
- [31] E. Park, I. Lee,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omen in poverty",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Vol.34, No.2, pp.256-266, 2009.
DOI: <https://doi.org/10.5393/JAMCH.2009.34.2.256>
- [32] H. Park, I. Seo,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elderly over 65 years in Korea: Using Andersen's behavioral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8, pp.83-95,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8.083>
- [33] S. Kwon, R. Kwon, H. Lee,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 promotional behavior of community dwelling frail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2, pp.742-751,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742>
- [3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Beyond the Goal of Eradicating Absolute Poverty in China: Relative Poverty Indicators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Available From: http://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ilo-beijing/documents/briefingnote/wcms_752212.pdf (accessed Oct. 20, 2021)
- [35] W. Lim,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basic pens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265, pp.79-91, 2018.
- [36]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19 User's Guid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orea, 2019.
- [37] A. F. Hayes, K. J. Preacher,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Vol.67, No.3, pp.451-470, 2014.
DOI: <https://doi.org/10.1111/bmsp.12028>
- [38] D. Iacobucci, "Mediation analysis and categorical variables: The final frontie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4, No.22, pp.582-594, 2012.
DOI: <https://doi.org/10.1016/j.jcps.2012.03.006>
- [39]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The Guilford Press, 2005.
- [40] L. Hu,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No.1, pp.1-55, 1999.
- [41]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13, pp.290-312,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 [42] S. Jeong, J. Bae, "Rural area one-person household elderly depression factors by gender and age group",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25, No.3, pp.153-174, 2017.
- [43] S. Won, H. Kim, "Social participation, health-related behavior, and depression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Vol.14, pp.61-71, 2020.
DOI: <https://doi.org/10.1111/aswp.12193>
- [44] M. Lee, H. Song, B. Kim,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s and subjective depression among single-person household",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35, No.2, pp.61-71, 2018.
DOI: <https://doi.org/10.14367/kihep.2018.35.2.61>
- [4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cial Welfare Policy for Older Adults,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4&PAGE=4&topTitle (accessed Sep. 10, 2021)
- [4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munity Care Policy and Programs, Available From: http://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713 (accessed Sep. 10, 2021)

원 서 진(Seojin Won)

[정회원]



- 2004년 5월 :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M.S)
- 2009년 12월 :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Work (Ph.D)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정신건강

송 인 옥(Inuk Song)

[정회원]



- 1999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지역복지